

石村洞百濟初期古墳의 性格

—第五號墳과 破壞墳을 中心으로—

任 孝 宰

一、序 言

서울東郊의 江南地域인 서울特別市 江南區 石村洞·芳夷洞一帶에는 先史時代에서 三國時代에 걸치는 各時代의 遺蹟이 散在해 있는 地域으로 學界의 至大한 關心이 쏠려 있던 곳이다. 그런데 最近 서울特別市에서 行한 江南의 蠶室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은 이一帶의 整地工事を 불가피하게 하였고 따라서 이곳에 散在된 遺蹟들은 곧 破壞될 運命에 놓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서울市當局과 文化財管理局의 協議下에 考古學者와 古代史學家로 蠶室地區遺蹟調查團(團長·金元龍博士)을 構成하여 지난 一九七四年以來 三年次에 걸쳐 緊急救濟發掘을 實施하였고 本稿는 第三次年度(一九七六年)의 石村洞一帶의 二基古墳調查에서 얻은 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石村洞 百濟初期 古墳의 性格을 밝히려는데 그 要旨가 있다.

끝으로 本稿의 發表를 허락해 주신 蠶室地區遺蹟調查團長에게 심심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一、考古學的 背景

漢江邊은 先史時代부터 취락지구로서 好條件을 갖추고 있다. 即 水量이 豊富하여 마르지 않는 큰 江을 따라 높이 않은 산들이 즐지어 있고

그 사이사이로 수많은 셋강들이 本流인 漢江으로 흘러 들고 있어서 많은 先史住居址, 古墳들이 계속적으로 發見 報告되어 왔으며 실제로 日帝時代부터 지금까지 岩寺里, 漢沙里, 東幕洞 等地에서 빗살문土器遺蹟이 發見되었고 無文土器 住居址로는 水石里, 明逸里, 可樂里, 驛三洞, 交河里, 玉石里 等地에서 報告되어 있다. 歷史時代 遺蹟으로서는 百濟初期의 여러 山城들과 古墳群들이 散在되어 있고 아직껏 百濟初期 都邑의 正確한 位置라든가 또는 初期의 歷史와 文化上의 諸問題들이 文獻資料만을 가지고는 解明할 수 없는 차이에 이런 遺蹟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重要한 資料인데 實際로 이런 問題解決에 關건이 될 이들 資料에 대한 學術調査는 매우 미미한 狀態이어서 石村洞所在의 古墳에 對하여는 簡略한 分布圖만이 作成된 채① 그대로 방치되었었고 解放以後에도 얼마간 같은 狀態이었으나, 이들의 重要性에 비추어 一九六九年 高麗大 博物館에 의하여 행해진 可樂洞 一基의 古墳 調査②, 그후 서울大팀의 調査와③ 本調査團이 行한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가④ 있었다. 이같이 既往에 調査된 것을 기본자료로 이 地域의 古墳의 一般의인 性格을 보면, 百濟初期古墳은 크게 두形式으로 分類할 수 있다⑤.

그것은 첫째로 積石塚類이고 다른 하나는 封土墳類이다. 後者は 다시 그 內部構造上의 특징에 따라 세類型으로 區分되는데, 첫째는 平地에 木棺을 넣을 墓壙을 판 뒤 木棺을 넣고 주위에 아무 施設없이 흙을 덮어 封土를 만든 土壙墓式, 둘째는 平地에 墓壙을 파고 長方形의 木槨을 設置한 뒤 그 上部에 돌을 얹으면서 흙을 덮은 所謂 積石木槨墳式, 셋째는 石室封土墳式이 있다. 高麗大에서 調査한 可樂洞一, 二號墳은 첫째 類型에 屬하지만 甕棺墓를 같이 문으면서 다른 세개의 土壙墓를 하나의 커다란 封土로 의운 特異構造라는 점에서 이번 破壞墳과 類似한 點이 많다.

三、石村洞古墳의 位置 및 現狀

서울市가 都市計劃事業의 一環으로 漢江以南 蠶室地區 土地區劃整理

에 따른 蠶室地區 第三次年度 石村洞一帶의 緊急救濟考古學調査는 現在 古의 完形으로 남아있는 石村洞 第五號墳의 一部와 이로부터 古의 正南으로 約二〇〇m 떨어진 位置한 石村洞破壞墳을 調査對象으로 하였다.

蠶室大橋에서 京畿道 城南市로 통하는 幅五〇m의 幹線道路를 버스로 約五分間가면 道路 左、右側에 마을이 나타나는데, 行政區域으로는 左側이 可樂洞、右側이 石村洞이다. (圖版1)

石村洞遺蹟은 幹線道路에서 部落을 向해 돌린 幅八m의 小路를 따라 約七〇〇m 내지 八〇〇m 地點에 位置해 있다(圖版2)。 部落 入口라고 할 道路邊에 史蹟 一〇一號로 指定된 大淸皇帝功績碑(一名 三田渡碑라고도 한)가 서 있고 그 앞을 지나 西南쪽으로 約五〇〇m 地點에 石村洞 第三號墳이, 다시 여기서 部落의 小路를 따라 約八〇〇m 地點에 石村洞 第四號墳이 位置해 있는데 이二基의 古墳은 前述한 대로 一九七四年 서울大發掘팀에 의해 發掘된 바 있으며 現在는 史蹟二四三號로 指定되어 있다.

이번 發掘의 對象인 第五號墳은 四號墳에서 南쪽으로 二五〇m 地點에 位置하며, 破壞墳은 五號墳에서 다시 南쪽으로 二〇〇m 地點에 位置해 있다. 兩古墳은 行政區域上으로 서울特別市 江南區 石村洞 一一九番地와 一二四番地에 해당한다.

便宜上 石村洞 破壞墳의 現狀을 먼저 보면, 원래 周圍보다는 약간 높은 臺地上에 築造되어 있었으나 數年前부터 서울시가 行한 土地區劃整理事業의 一環으로 이 지역의 상당부분이 이미 整理工事が 完了되었고 따라서 이 古墳주위 一帶는 이제 넓은 平地가 造成되어 있으며 古墳의 封土역시 이때 完全히 부르도저에 依하여 깎여 나갔기 때문에 殘構만 地下에 一部 남아 있어 이것을 「石村洞破壞墳」이라 命名한 것이다. 이렇게 古墳自體뿐 아니라 그 주위지역도 이미 넓게 整地作業이 完了된 까닭에 古墳의 外形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圖版3의 ①)。

石村洞 第五號墳은 古墳을 中心으로 그 周圍에 樹齡數百年 되는 香木이 자라고 있다. 이 香木이 正確히 몇해나 묵었는지는 마을사람들 도

모르고 있으며 다만 第五號墳과 그 東便에 있는 韓氏門中에서 管理하는 堂집을 둘러싸고 있다. 立地로 보아 第五號墳은 洞內에 제일 높은 地帶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數年前 高麗大發掘팀에 의해 調査된 第一、二號墳이나 서울大發掘팀에 의해 조사된 三、四號墳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平地에 만들어졌다. 第五號墳의 東便과 南便에는 木造養鷄場이 있고 西便에 上述한 祭堂이 있으며 北便에는 崔鍾善氏의 草家와 韓浩哲氏 所有의 倉庫가 있다.

古墳의 外形은 平面으로 보아 南北이 若干인 橢圓形을 나타내며 周圍에는 鷄舍와 民家 및 堂집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視野에 금방 들어 오지는 않는다. (圖版4의 ①)

發掘에 着手하기 前 第五號墳의 封土表面에는 雜草더미와 아카시아 잔가지들이 密生하고 있었으며 근데근데 石塊들이 露出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封墳自體는 緩慢한 傾斜를 지닌 채 原狀이 比較的 잘 保存되어 있었다. 다만 東便에 位置한 鷄舍를 세울 當時에 깎아낸 탓으로 墳丘의 東端이 急한 傾斜를 보이고 있을 따름이었다.

「朝鮮古蹟圖譜」三에는 甲塚、乙塚 包含하여 都合 九〇餘基가 있었던 것으로 報告되어 있으나 現在 이 一帶에서 封墳을 갖춘 古墳으로는 第五號墳만이 遺存할 뿐이며 나머지는 깎이어 없어졌거나 아니면 民家에 묻혀버린 實情이다.

第五號墳은 南北 長徑이 十四・二m、東西短徑이 一一・〇m로 그 平面은 長方形에 가까운 橢圓形을 나타내며 封土頂上部까지의 높이는 二・〇―二・六m를 보인다. 封墳은 大體로 緩慢한 傾斜를 維持하고 있으나 東便은 比較的 急한 便이다. 登高線상의 높이로 보아 頂上部는 一一・八―二三・〇m를 나타내고 있으나 原來 이 보다는 조금 높았으리라 생각된다. (圖版4의 ②)

四、發掘節次 및 方法

發掘하기 以前の 石村洞破壞墳은 頂上部의 封土가 完全히 깎이어 나

간체, 整地된 平地에 一部의 地下構造가 殘存되어 있었기 때문에 五號墳의 中心部分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中心으로 幅 1m의 南北 探索트렌치를 區劃하여 파 나갔고(圖版3의 ②), 이 트렌치내에서 나타난 遺構를 中心으로 東西트렌치를 파 나간 뒤(圖版5의 ①), 各트렌치에 나타난 遺構의 構造를 把握하기 위하여 2m×2m의 핏트를 파 나갔다. (圖版5의 ②) 各핏트사이에는 幅 50cm의 楯을 남겼으나 尤구의 枕木를 구명하기 위하여 차례로 이들을 除去하였으며 北西隅에 나타난 葺石의 構造와 (圖版5의 ③) 全體的인 築造過程을 再現하기 위하여 圖版5의 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몇개의 핏트를 區劃하여 最下部의 明褐色粘土層까지 깊게 파 나갔다.

古墳의 築造樣式은 時代에 따라 集團構成員에 따라 各各 그들의 文化 信仰, 그리고 思想的 背景을 反映하고 있기 때문에 築造過程을 밝히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 따라서 封土는 完全히 破損되었지만 地下部의 殘存部에서 그런 過程을 살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各各의 南北·東西 探索트렌치 및 遺構가 露出된 部分中 그런 過程을 明確히 할 수 있는 部分은 土壙墓 底部以下도 現地表下一·三m까지 깊게 파 보았으며 이런 調査進行 中에 여러 土壙墓의 先後關係도 밝혀진 것이다.

各 土壙墓의 規模나 築造過程이 밝혀진 다음에는 各 土壙墓間의 差異를 比較하기 위하여 各 土壙墓주위에 놓인 遺物의 配置에 主眼點을 두면서 各 土壙墓別로 遺物을 採集하였다. 各 土壙墓마다 各各 다른 種類의 土器를 副葬하고 있는데 各各 그들의 의미 및 機能을 파악하려는 노력으로 그 内部에 있는 土壤을 採取하였고, 將次이 土壤에서 검출된 物質의 性質에 따라 土器의 形態와 機能關係를 明確히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副葬位置의 意味도 抽出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土壤에서 檢出된 物質의 精密한 分析은 考古學者以外的 他分野 專門家에게 의뢰되기 때문에 그런 結果를 알기까지에는 相當한 時間을 要하게 되어 本稿作成以後에야 結果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石村洞 第五號墳은 調査되지 않은 것 中原狀이 良好하게 保存되어

있는 唯一한 例이기 때문에 調査에 着手하기 以前부터 調査團에서는 第五號墳을 어떠한 方式으로 發掘할 것인가에 對하여 眞摯한 討議가 繼續되었다. 結果적으로 얻어진 調査의 方針은 第五號墳의 一部 性格을 確認하는 것으로 一段落짓고, 보다 考古學的 技術이 發展된 때에 完全한 調査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古墳의 内部構造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하는가에는 그 限界가 曖昧하다. 調査에 着手하기 直前 調査團에서는 第五號墳에 東西 및 南北方向으로 幅 1m 정도의 探索트렌치를 넣어서 遺構의 性格을 파악하자는 意見과 四分法을 適用하여 部分을 때어보자는 主張이 있었다. 遺構의 性格이 어떠한 것인지 아무도 豫測할 수 없으며 調査를 원활히 進行하기에는 後者가 有利하다고 決定이 되었기 때문에 地形測量을 마치고 나서 假想 中心點 D·A를 定하고 南北 東西로 古墳을 四分法(Quadrant Method)에 따라 나누었다. (圖版4의 ③)

南北線을 中心으로 土壤의 處理가 簡便한 北西部를 먼저 着手하기로 하고 東西線에서 南西部쪽으로 五〇cm 幅의 掘堤(Bank)를 남기고 다시 南西部를 北西部와 같은 水準으로 除土해 나갔다. 이와 같은 方式으로 除土를 繼續하여 中心部의 가장 깊은 곳은 表土下 一六〇cm의 깊이에 이르렀다.

第五號墳의 西半部는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露出되기 始作한 葺石의 表面全體가 드러나고(圖版4의 ③) 中心部의 깊이가 一六〇cm에 이르러는 地點에서 調査를 一段落 지었으며 葺石의 平面과 土層斷面圖를 作成하는 것으로서 作業은 마무리 지어졌다. (圖版4의 ⑤)

以後의 再調査에 對備하여 墳丘의 原狀을 復舊함과 (圖版4의 ⑥) 同時에 古墳周邊으로 돌아가면서 附隨施設이 있는가를 確認하기 爲하여 掘堤의 西端에서 東西方向으로 〇·八m×四·〇m 크기의 探索트렌치를 넣음으로써 調査를 끝냈다.

五、石村洞破壞墳

가、構造

發掘前 破壞墳의 封土는 完全히 削平되었고 또한 그 周邊도 整地工事が完了된 狀態에서 調査가 始作되었기 때문에 正確한 墳丘의 크기는 알 수 없으나 發掘過程에서 나타난 地下部의 殘存遺構 狀態로 그것을 復原할 수 있고 또한 築造過程 및 構造를 밝혀 낼 수 있었다.

本古墳은 한마디로 一巨封土多墳墓의 集團墓性格을 띠는 것으로 本來의 平地위에 若干 높은 粘土台地를 版築한 다음 그 위에 여러 個의 土壙墓를 만든 다음 小封土로 덮고 이 小封土上을 하나의 큰 封土로 다시 쌓은 것이다. 보다 상세히 이야기 하면, 南北으로 연이어 두개의 小封土墳과 이들과 各各 東側으로 後世에 增築한 小封土를 합한 巨大한 橢圓形墳墓이었으며 四隅에는 이것을 堅固히 하고 流土를 防止하기 爲한 葺石을 約三〇cm 크기의 割石과 그보다 작은 河川石으로 덮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平面圖上에서 보듯이(圖版6) 四隅에만 있으며 그것은 第五號墳과 마찬가지로이다. 小墳丘의 直徑은 十五m 내외이지만 全體的인 南北直徑은 三八m 程度の 巨大한 封土墳인 것이다.

詳論하면, 墳丘의 上部는 狹이어나 가긴 했으나 殘存部의 細部調査에서 나타난대로 黑褐色 腐飾土로 덮여 있으며 그 아래 四隅에는 約三〇cm 크기의 割石과 河川石으로 한層 덮고 있으나 中央部에는 전혀 없이는 粘土만으로 되어 있다. 그 積石下部에는 約二〇~三〇cm 두개의 黑色의 고운 粘土層이 덮여 있으며 그 아래에는 約五~一〇cm 두개의 石灰가 섞인 灰色粘土層이 小墳丘全面을 덮어 浸水를 防止하는 한편 墳丘의 保護作用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이 灰色粘土層 下部부터는 一五〇cm 以上 두개의 明褐色粘土를 版築으로 다지고 있는데 土壙墓一은 이 版築으로 다진 粘土層 上部에 있으며 二個의 甕棺 및 그밖의 副葬品이 주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土壙墓와 甕棺墓가 묻힌 小墳丘 東側에 따로 後日 또 다른 二個의 土壙墓를 묻고 小墳丘를 만들고 있는데 斷面圖에서 보는데

로(圖版7) 完全히 獨立된 墳丘라고 하기보다는 土壙墓I의 小墳丘를 一部 占領한 채 이에 바짝 기대어 構築한 것이 特色이다. 土壙墓V는 土壙墓I 墳丘와는 바로 南쪽으로 연이어 獨立된 墳丘를 만든 것인데 그 경계지점에 土壙墓IV가 트렌치상에 나타나고 있고 土壙墓V와 東側으로 연이은 또 다른 小墳丘가 築造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東西트렌치一部에만 露出되었기 때문에 細部的인 것은 現在로서는 알 수 없다.

要約하면 平地보다는 若干 높게 粘土台地를 版築에 의하여 다진 다음 土壙墓I과 土壙墓V를 各各 따로 만들고 나서 木棺을 安置하였으며 各各의 上部에는 粘土를 다시 덮고 防水를 目的으로 한 石灰를 섞은 灰色 粘土를 입힌 뒤 一個의 巨封土로 덮고 있으나, 四隅에 葺石을 덮어 흙의 流失을 막아 堅固한 封土를 維持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後에 死者가 생긴 다음에는 바로 이의 一部分을 除去하고 木棺을 安置한 後 다시 封土를 만들어 全體的으로 一巨封土이지만 그 内部에는 여러개의 土壙墓가 묻혀 있는 一封土多墳墓의 集團墓性格을 띠고 있다. 이제 各各의 土壙墓의 細部構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土壙墓I(圖版6、8의①、10)

土壙墓I은 巨封土 北西部에 있는 直徑 十四~十五m의 小封土 内部의 主壙으로 明褐色 粘土層內에 土壙을 파고 木棺을 安置한 後 左右 兩側에 甕棺을 묻은 一種의 複葬이다. 먼저 木棺의 크기는 全部 부식되어서 確實하지 않으나 木棺痕이 그대로 底部에 남아 있어 實測한 結果, 長軸 三·二m 短軸 九〇cm의 크기로 長軸 方向은 東北~西南이다. 人骨도 모두 부식되어 없어져서 死者의 形跡은 없으나 棺의 크기나 주위의 遺物의 性格 등으로 보아 成人으로 보인다. 木棺 주위에는 遺構의 별다른 施設物이 없으나 可樂洞 一、二號墳처럼 木棺 底面에 깔았던 河川石이 二個 있으며 또한 甕棺을 複葬한 것이 可樂洞과 같다.

먼저 西側 甕棺은 完形으로 發見되었는데 單式 甕棺으로 높이는 三八cm의 小形甕이다. 주위에는 별다른 施設없이 明褐色 粘土層에 口部를 西向한 채 놓여 있다. 甕棺 内部에는 흙으로 가득 차 있는데 人骨 흔적은

부식에 의한 지 천허 없었다. 이 内部의 토양은 앞으로 정밀한 分析에 依하여 再檢討되겠지만, 좌우간 이런 形態의 甕이 幼兒用葬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여기에 따르면 이 甕棺은 土壙墓Ⅰ의 築造時 埋葬된 死者의 家族일 것이다. 不幸히도 土壙墓Ⅰ의 右側 甕棺은 完全히 破損되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그 크기나 形態는 破片으로 보아 左側의 그것과 類似하다.

2、土壙墓Ⅱ(圖版 6、8의 ②、10)

土壙墓Ⅱ는 土壙墳Ⅰ과는 다른 小封土내에 있는 것으로 地層上 土壙墓Ⅰ의 封土가 完成된 後에 土壙墓Ⅰ 東側墳丘의 相當部分을 除去한 後 死者를 묻어 다시 小封土를 構築한 別個의 것이나 實相은 그後 다시 巨大한 封土를 덮었기 때문에 一巨封土의 東側部分에 埋葬한, 말하자면 一封土 多壙墓의 性格을 띤 古墳內의 하나의 土壙에 해당된다. 이렇게 土壙墓Ⅰ以後 後葬되었기 때문에 土壙墓Ⅰ과는 近接되어 土壙을 관습인데 土壙墓Ⅰ과는 若干 다른 構造를 가지고 있다. 즉 土壙墓Ⅰ에서는 別다른 施設이 없었으나 土壙墓Ⅱ에서는 明褐色 粘土層內의 棺底面에 얇은 板石을 깔고 있고 棺上部에는 三〇cm 크기의 割石을 덮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特히 頭部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보다 많은 割石과 河川石을 集中的으로 덮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人骨 破片이 少量이나마 남아 있었으나 그 體質的 性格을 究明한 만한 資料로서는 不充分하다. 木棺의 흔적과 꺾쇠의 범위로 보아 長軸二・四m、短軸〇・九m 程度の 成人用葬으로 보이는데 長軸 方向은 西北—東南方向이다. 土壙墓Ⅰ보다는 高度上 약간 높은 곳에 木棺을 安置하였으므로 같은 高度의 粘土層內에 연이어 土壙墓Ⅲ이 東便에 있다.

3、土壙墓Ⅲ(圖版 6、8의 ③、10)

土壙墓Ⅲ은 土壙墓Ⅱ와 같이 西北—東南方向으로 一直線上에 있으며 長軸의 方向도 같다. 一・〇m×〇・七m 크기의 棺(槨)底面에는 土壙墓Ⅱ처럼 板石같은 施設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土壙에 棺(槨)을 묻은 後 割石을 드문드문 올려 놓은 것이나 頭部에 많은 割石을 덮고 있고

그 下部에서 人骨破片이 出土되는 것과 동시에 完形 土器들이 있는 것들은 土壙墓Ⅱ와 꼭 같으며 土壙墓Ⅱ와 Ⅲ은 같은 平面에 同時に 土壙을 구축한 後, 木槨을 만들어 死體를 묻은 것이다.

4、土壙墓Ⅳ(圖版 6)

土壙墓Ⅳ는 土壙墓Ⅰ에서 南北으로 幅一m로 구획하여 넣은 探索트렌치에서 나타난 遺構로 土壙墓Ⅰ을 덮은 封土의 번두리에 해당되며 이곳을 中心으로 넣은 東西 探索트렌치에서 나타난 상태로는 長軸 七・五m、短軸 五・〇m의 넓은 구덩이를 판 다음 그 底部에서 木棺을 安置한 것이다. 現地表로부터 〇・四~〇・六m下的 底面에서는 鐵製品이 酸化된 채 粘土와 섞이어 發見되고 있고 西側部에서 完形 土器類가 露出되고 있다. (圖版 9의 ③) 이러한 土器類의 配置로 보아 長軸이 北北東—南南西인데 이것은 前述한 대로 土壙墓Ⅰ과 Ⅴ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다.

5、土壙墓Ⅴ(圖版 6、11)

土壙墓Ⅴ는 土壙墓Ⅰ에서 南쪽二三m지점에 있으며 여타의 土壙墓보다는 若干 얇게 묻혀 있다. 明褐色 粘土層內에 木棺을 北北西方向으로 安置하고 있고 底部에 木棺痕이 그대로 保存된 채 남아있는 (圖版 8의 ⑤) 唯一한 土壙이다. 주위에는 別다른 施設이나 割石이 없지만 이 木棺을 中心으로 주위에 一點의 完形 土器와 一個體分의 土器片들이 發見되고 있다.

이 以外에도 이 土壙墓Ⅴ의 주변을 探査한 결과, 土器類들이 現地表 가까이에서 多數 露出되었는데 또 다른 遺構는 없었다.

全體의 으로 볼 때 平地上에 粘土로 약간 높은 臺地를 만든 後 死者를 묻고 封土를 씌우고 있으나 또다른 死者가 생겼을 경우 이미 있던 封土를 若干 除去한 後 土壙墓를 만든 다음, 다시 封土를 덮은 뒤 全體的인 一封土를 만든 一封土下에 여러 死者를 묻은 集團墓의 構造를 가진 百

別表 I 石村洞 破壤古墳 出土品

出土地	點數	遺物種類
土墳墓 I	1	把手
	1	甕棺(完形)
	1	甕棺(破片)
	若干	土器 破片
土墳墓 II	7	꺽쇠
	14	鐵釘
	若干	土器片
土墳墓 III	1	赤褐色 有文壺
	1	灰青色 無文壺
	25	꺽쇠
	22	鐵釘
土墳墓 IV	1	赤褐色 有文蓋
	1	灰青色 有文壺
	若干	鐵製 破片
土墳墓 V	1	灰青色 平底 無文壺
探索트렌치	1	赤褐色 有文壺
	1	灰青色 小壺
	3	灰青色 有文壺
	1	灰青色 無文壺
	1	台附 灰青色 盥
	1	把手附 赤褐色 有文甕
	1	灰青色 無文蓋

濟初期의 特殊墓制의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나, 出土遺物

이 破壤墳內에서 出土된 遺物種類로는 크게 土器類, 鐵釘, 꺽쇠, 그리고 人骨小破片이 있는데 各 土墳墓間의 相互關係,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한 古墳主體人의 性格 등을 究明하려는 노력의一部로서 器形別로 羅列說明하는 것을 피하고 各 土墳墓別로 一括하여 順序대로 기술하였다. 이들 遺物을 各 土墳墓別로 集計하면 右記 別表一과 같다.

以上 各 土墳墓別로 副葬된 遺物은 都合 一二點의 完形土器, 三二點의 꺽쇠 三六點의 鐵釘과 其他 土器破片이 若干 있다.

※ 圖版의 縮尺은 實測圖에만 該當됨.

1, 土墳墓 I 出土品

가, 牛角形把手

길이 七 cm 最大 直徑 三·五 cm 褐色 牛角形 손잡이로 土墳墓 I 의 西

側甕棺 破損品附近에서 出土되었다. 이것은 土墳墓 I 小封土 西側 끝 表面 가까이서 따로 나온 것으로 甕棺 破損品과는 別個의 것이다.

나, 完形甕棺(圖版 12의 ②)

이 赤褐色 完形 甕棺은 土墳墓 I 의 西側 約 一·八 m 地點에 놓인 單式甕으로 全長 二八 cm 口徑 一九 cm, 最大 腹徑 二八 cm 의 크기로, 두께는 〇·八~〇·九 cm 이며 口部가 外反된 壺形土器이다. 胎土質은 굵은 砂粒을 混入하여 堅固하게 만들었는데 옆으로 놓여 있어서(西向) 땅에 닿았던 部分은 黑褐色이나 全體的으로는 赤褐色이다. 口部를 除外하고는 全表面에 格文이 施文되어 있으며 內部에는 皮膜(Skin)을 입히고 있다. 口部의 형태로 보아 特別한 뚜껑을 만들어 씌운

것 같지는 않으며 圓평한 돌이나 河川石, 아니면 木片을 얹어 뚜껑代用으로 使用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놓인 位置가 土墳墓 I 과 같은 地面에 있으면서 地質層內에는 그 高란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土墳墓 I 과는 同時에 埋葬한 幼兒用甕棺으로 보인다.

다, 甕棺破片

이 赤褐色의 破損된 甕棺破片들은 土墳墓 I 의 右側 二 m 地點에 놓인 單式甕으로 口部나 腹部의 直徑과 胎土質의 性質이나 두께 그리고 文樣上的 특징으로 보아 前述한 完形甕棺과 恰似하다.

비록 破片의 一部가 없고 完全 復原이 안되어 正確한 甕의 크기는 數字로 算出할 수 없으나 前述한대로 西側의 甕棺과의 共通된 특징은 土墳墓 I 을 사이에 두고 左右 兩側에 同時에 埋葬된 한 세트의 幼兒用甕棺으로 보이는 것이다.

라, 土器破片

그밖에 그 形態를 알 수 없는 赤褐色 土器小片들이 若干 採集되었다.

그들은 주로 木棺痕 주위에서 出土된 것인데 數的으로 많지 않다.

2, 土壙墓Ⅱ 出土品

이곳에서는 木棺痕底面に 깔린 一列의 板石을 中心으로 北側에서 灰青色 土器破片과 北西側에서 半破된 無文灰色土器가(圖版9의 ①) 出土된 以外에는 모두 鐵製品으로 碎 쇠七點, 鐵釘 一四點이 있다. 碎 쇠는 圖版 14의 ⑤⑥에서 보듯이 길이 八·四cm의 ㄷ字形이며 부석이 심하다. 鐵釘 역시 부석이 심한데 七(一〇cm 크기의 것이 大部分이다(圖版 14의 ④⑤)). 이들은 모두 木棺(槨)에 使用되었던 것이다.

3, 土壙墓Ⅲ 出土品

이곳에서는 모두 一點의 完形壺와 二五個의 碎 쇠(圖版9의 ②) 그리고 二二點의 鐵釘이 出土되었다.

가, 赤褐色 有文壺(圖版 14의 ⑦)

土壙墓Ⅲ이 北北西方向으로 長軸을 두고 있는데 이甕은 長軸을 中心으로 西側에 놓여 있다. 高一三·六cm, 口徑 一四·五cm, 腹徑 一八·五cm 底徑 六·五cm의 크기로 두께는 〇·四cm이다. 口緣部는 外反되면서 二重口緣이며 底部는 平底에 가까운 圓底인데 甕석문으로 全面에 施文되어 있다. 正確한 用途는 알 수 없다.

나, 赤褐色 平底小鉢(圖版 14의 ③)

口緣이 外反되면서 平底인 高一二cm, 口徑 一一·四cm, 腹徑 一二·六cm, 底徑 八·八cm인 小鉢인데 두께는 〇·五cm로 軟質의 土器이다. 이것도 長軸을 中心으로 西側에서 出土된 것인데 器全面이 甕석문으로 施文되어 있다.

다, 無文壺(圖版 14의 ②)

이것도 前述한 遺物과 같은 地點에서 出土되었는데 表面은 灰白色이고 內面은 黑色인 無文壺의 下半部만이 復原되었다.

라, 灰青色 無文壺(圖版 14의 ①)

이것도 모두 前述한 遺物들과 같은 地點에서 出土된 것으로 正確한 높이는 알 수 없으나 口徑 一一·八cm, 腹徑 一七·五cm의 壺로 胎土는

매우 堅固한 炆器에 가깝다. 土器의 上半部만 남아 있다.

4, 土壙墓Ⅳ 出土品

이곳에서는 有文壺 二點과 若干의 鐵製品 破片이 出土되었다. 가, 赤褐色 平底小鉢(圖版 15의 ①)

이것은 土壙墓Ⅳ의 中央 西側 一m 지점에 거꾸로 놓여 있었는데 表面은 赤褐色에 두께 四mm의 얇은 것으로 胎土에는 砂粒을 混入하고 있어 表面은 몹시 거칠지만 內面에는 皮膜(Skin)을 입히고 있다. 높이 一〇cm 口徑 一〇cm, 底徑 六cm의 小鉢의 全面은 甕석문으로 施文되어 있고, 그 위에 口徑과는 平行으로 五個의 平行線을 陰刻하되 그 간격은 약 一cm 幅이다. 內面에 皮膜을 입힌 것을 보면 액체를 담기 위한 副葬用器로 보인다.

나, 灰青色 有文壺(圖版 15의 ②)

前述한 小鉢 左側에 놓여 있던 高一二〇cm, 口徑 一七cm, 腹徑 一二cm 底徑 一二cm 크기의 甕석문으로 施文된 灰青色 壺이다.

腹部와 底部가 부드럽게 連結되어 있으며 口緣部는 外反되어 있다.

5, 土壙墓Ⅴ 出土品

이곳에서는 灰青色 平底無文壺 一點과 完全히 부식되어 小片으로 採集된 鐵製品이 若干 있었다.

가, 灰青色 平底壺(圖版 15의 ③)

거의 完形으로 腹原된 이 灰青色 壺는 높이 一二cm, 口徑 一五cm, 腹徑 三〇cm의 크기로 口部는 수직으로 끝나는 데 고운 粘土만으로 胎土質은 단단하며 두께는 〇·八cm이다. 底面은 平底에 가깝고 底部 가까이에는 格子式的 打印文이 있으나 그 밖의 全面은 無文이다. 口緣部는 수직으로 끝나고 있어 두께가 있었으나 그 正確한 副葬의 意味는 알 수 없다.

나, 鐵製殘片

모두 부식된 鐵製小破片만이 粘土內에서 採集되었다. 심하게 부식된 채 木棺 底面に 그대로 殘存되어 있다.

6, 其他 出土品

土壙墓 V 南側으로 확장한 연장 探索트렌치의 現表上 附近에서 一群의 土器完形이 採集되었다.

가. 赤褐色 平底小鉢(圖版 13의 ④)

이것은 土壙 IV에서 出土된 것과 그 특징이 恰似하다. 表面은 赤褐色으로 두께는 〇·五 cm로 얇지만 胎土에 砂粒을 混入하여 堅固히 하고 있다. 높이는 九 cm, 口徑은 一一 cm, 底徑 七 cm의 小鉢의 全面은 土壙墓 IV 出土品과 같다. 器形上 그것보다는 直徑이 길고 보다 重厚한 감이 있다.

이것도 表面에는 皮膜을 입히고 있어 액체를 넣을 目的으로 만든 副葬器로 생각된다.

나. 把手附 赤褐色 有文甕(圖版 12의 ②)

全面을 打印文으로 施文한 높이 二二 cm, 口徑 二二·八 cm, 腹徑 二六·四 cm, 底徑 一一 cm 크기의 廣口形 赤褐色甕으로 두께는 〇·七 cm이며 兩側에는 길이 五·五 cm(把手直徑 二·四 cm)의 牛角形 把手가 달려 있으며 口部는 若干 外反되었고 底部는 圓底이나 安定感을 주는 土器이다. 外形上 시루와도 恰似하나 그 以上 正確한 것은 알 수 없다.

다. 灰青色 平底小壺(圖版 13의 ②)

이것은 高一〇·五 cm, 口徑 六·五 cm, 腹徑 一一 cm, 底徑 六·五 cm의 크기로 灰青色 壺로서는 小形에 屬한다. 두께는 〇·四 cm 이고 口緣部는 수직으로 끝나고 뚜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轆轤를 使用해서 만든 灰青色 土器로 重厚한 感을 준다.

라. 灰青色 有文壺(圖版 13의 ⑤)

이것은 이곳에서 出土된 土器中 가장 大形의 灰青色 土器로 高三三 cm 口徑 一六·五 cm, 腹徑 二八 cm의 外反된 口部를 가진 有文壺로 腹部 全面에는 층석문이 施文되었으나 口部와 平行으로 五個의 陰刻線을 그은 것이 이곳에서 出土된 다른 有文壺와 같다. 두께는 一 cm로 胎土는 매우 堅固한 편인데 이것은 死者를 爲한 穀物을 넣었던 副葬用 土器라고 생

각된다.

마. 灰青色 有文壺(圖版 12의 ①)

半破된 部分만이 採集 復原되었으나 실측도에 의하면 口徑 一一·四 cm 腹徑 三〇 cm 이고 確實한 높이나 底徑은 알 수 없다. 土器의 두께는 〇·七 cm로 매우 堅固한 灰青色 土器로 口部는 수직으로 끝나고 口部를 除外한 器全面에는 打印文으로 施文되어 있다. 이것도 위의 例처럼 副葬用 容器로 보인다.

바. 灰青色 台附甕(圖版 13의 ③)

口緣部가 없어진 表土附近에서 採集된 唯一한 台附甕인데 두께 〇·六 cm의 灰青色으로 現高는 약 一八 cm, 腹徑 一一 cm, 台徑 一三 cm 되는 祭器의 一種이라 생각된다.

사. 灰青色 杯(圖版 13의 ①)

直徑 一三 cm의 灰青色 無文杯로 이곳에서는 唯一하게 出土되었다.

아. 灰青色 無文壺(圖版 12의 ③)

이것도 前述한 土器類와 같이 出土되었는데 下半部만 復原된 것이다. 土器의 두께는 〇·七 cm의 灰青色 炝器로 腹徑이 二五·八 cm인 比較的 大形 土器에 屬한다. 이것도 祭物을 담기 위해 容器로 副葬된 것이다.

以上 各 土壙墓 出土品을 一括 說明하였다. 各 土壙墓別 副葬品은 그 數量面에 있어 一〇二個의 壺를 頭部주위에 묻고 있는 것이 特色이며 대체로 赤褐色 有文壺 一點과 灰青色 壺 一點을 副葬하고 있다. 이렇게 遺物의 數에 있어서는 小數만이 副葬되어서 各 土壙墓別 比較資料로서는 不充分하나 土器의 器形이나 製作手法, 그리고 文樣上에 특징적인 要素들이 共通된 특성을 보이는 것은 各 土壙墓人 사이에 거리감이 없었던 것을 傍證하고 있으며 그것은 共通된 生活내지 社會階層의 배경에서 由來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遺物의 性格이나 古墳의 全體의 構造上의 性格을 감안할 때 이들은 家族내지 親族들의 集團墓性格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 古墳의 性格

土壙墓Ⅰ에서는 可樂洞 一、二號墳처럼 木棺底面에 河川石을 二個이고 있을 뿐 별다른 施設은 없었으나 土壙墓Ⅱ와 Ⅲ은 아예 築造時부터 底面에 얇은 板石을 部分的이나마 깔던가(土壙墓Ⅱ), 또는 土壙墓Ⅲ에서처럼 大形 板石을 깔고 그 위에 木棺 槨을 安置하면서 주로 頭部 上部 및 그 주위에 割石으로 덮는 것이 土壙墓Ⅰ과 다르다. 層位狀態나 板石의 配列로 보아 土壙墓Ⅱ와 Ⅲ은 同時에 構築한 것인데, 土壙墓Ⅰ 또는 可樂洞 一、二號墳과 같은 土壙墓 形式보다는 後代의 것으로 構造上으로나 施設物이 첨가된 것으로 보나 보다 進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土壙墓Ⅰ 南側으로 연이은 土壙墓Ⅴ가 다른 小封土에 依하여 築造되었고, 거기에는 木棺底面이 잘 保存된 채 있다. 주위에는 別施設物이 없으나 土壙들이 配列되어 있을 뿐이다. 土壙墓Ⅰ과 Ⅴ사이의 探索트렌치내에서도 土壙墓Ⅳ가 露出되었는데 土壙墓Ⅰ이나 Ⅴ처럼 별다른 施設物이 없는 木棺土壙墓로 土壙를 副葬하고 있다.

결국 土壙墓Ⅰ의 封土와 土壙墓Ⅴ의 封土는 거의 同時에 따로따로 築造되었고, 土壙墓Ⅱ, Ⅲ은 土壙墓Ⅰ 바로 西側에 기대어 後世에 增築한 것이다. 土壙墓Ⅰ과 土壙墓Ⅴ사이의 土壙墓Ⅳ는 小封土 境界지점에 만든 것이지만, 이것은 探索트렌치內에서만 나타난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土壙墓를 묻기 위한 粘土臺地는 版築에 의하여 굳게 다지고 있으며 그 上部에는 防水를 目的으로 한 石灰가 섞인 粘土層을 입히고 있고 封土 四隅에는 葺石을 얹어 흙의 流失을 막으면서 堅固히 한 百濟 特有의 一巨封土多壙墓로, 그 內部の 構造의 特性이나 副葬된 遺物의 數나 種類別 土器의 配置 그리고 遺物의 器形이나 文化要素들이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 것은 적어도 文化的으로나 社會的으로 土壙墓 主體者들간의 거리감이 없음을 反映하는 것으로 當時의 家族墓 또는 親族集團墓의 性格을 띄고 있으며, 더구나 墓制上 在來의 土壙墓形式을 기본으로 하고,

이곳 居住民의 地方的要素를 加味하였다는데서 高句麗系統의 積石塚보다는 낮은 階層의 것이지만 可樂洞의 小形石室墓보다는 높은, 이 地方出身 支配層의 墓로서 의 性格을 갖는 것이다.

六、石村洞 第五號墳

全掘을 完了하지 않은 狀態에서 古墳의 性格을 論하는 데에는 多少의 無理가 있겠지만 追後의 再調査를 爲하여 그 性格의 一端을 記述할 必要가 있다.

가, 構造

石村洞 第五號墳은 葺石을 씌운 土壙墓이다. (圖版 16, 17) 墓槨의 構造는 未詳이지만 墓槨위에 덮은 粘土와 封土의 流失을 막기 爲하여 配慮한 葺石等의 存在는 一九六九年에 發掘된 可樂洞 第一・二號墳과 性格을 같이 하는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土層에서 나타난 變化를 본다면 土層의 線에 있어 陷沒된 部分이 없고 灰가 섞이고 잘 다져진 듯한 第三層의 線이 中心을 向해서 若干 內傾하고 있는 點과 北西部 中央 表土下 一四〇cm에 나타난 石列等의 存在로 보아(圖版 4의 ④) 可樂洞 第一・二號墳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二個以上の 小墳丘를 다시 커다란 單一 封土를 덮어 씌운 形態를 가지고 있는 家族墓의 性格을 띄는 것으로 判斷할 수 있다. 土層의 構成으로 보아서 除土된 部分까지는 대체로 四個로 層位區分이 可能하다.

表土層(表土下 五~一〇cm 暗褐色 砂質土)

第一層(一〇~四五cm 黑褐色 砂質粘土)

第二層(四五~一三〇cm 黃褐色 粘土)

第三層(一三〇~?) 灰가 섞인 다진 粘土)

以上的 土層關係는 可樂洞 第一・二號墳이나 이번엔 調査한 石村洞 破壞墳의 境遇에서도 恰似한 樣相을 나타낸다. 이 中 葺石은 第一層, 即 表土直下에 集積되어 있는데 대체로 二〇~四〇cm의 두께를 지니고 있다. 特異한 點은 封墳 頂上部를 中心으로 하여 直徑 三・〇~三・二m

以內에서는 葺石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全體的으로 다 그러 한지 確認되지는 않았지만 西半部에서 나타나는 樣相은 매우 興味롭다. 또한 墳丘의 內緣에는 주로 三〇(五〇cm 크기의 割石을 쌓아 놓은 反面 外緣(幅 一・二(一・八m)으로는 一〇(二〇cm 정도의 川礫을 덮고 있음이 注目된다. 이는 排水施設을 確認하기 爲하여 設定한 探索 트레치 에서도 나타나는데 周邊으로 돌아가면서 川礫을 주로 덮고 있음은 排水 等의 特殊한 目的을 爲하여 始初부터 配慮된 것임이 分明하다.

構造에 있어서 또 다른 特徵으로서는 封墳의 外緣에 新羅古墳等에서 볼 수 있는 護石과 같은 施設을 하고 있음이 注目된다. 이 역시 排水施設을 爲하여 設定한 探索 트레치에서 밝혀졌는데 川礫石의 끝에 있어 커다란 割石을 二段程度로 쌓아 놓은 것이 發見되었다. 實際로 어떠한 用意로 築造된 것인지는 不明하나 封墳의 마무리作業과 直接的인 連關을 가지는 施設로 推定된다.

나, 出土遺物

封土內에서도 遺物이라고는 단 一點도 發見되지 않았으며 表土上面에 간혹 李朝磁器片이 있을 뿐이다.

다, 性格

前述한 바와 마찬가지로 第五號墳은 土壙墓에 屬한다. 다만 그것이 어떠한 性格의 土壙墓이며 墓槨의 構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不透明하기 는 하지만 그것이 第三, 四號墳과 같은 積石塚의 모습을 가지지 않고 第一, 二號墳과 通하는 性格을 確認하였다는 點과 더우기 지금 現在 第一, 二號墳이 짝여 없어져서 이 一帶를 통털어 完形을 保持한 唯一無二한 百濟初期의 土壙墓라는 點에서 그 重要性은 一層 倍加된다.

七, 結語

石村洞破壞墳과 第五號墳은 모두 一巨封土多壙式의 木棺土壙墓로 보 이는데 AD 二—三世紀의 百濟初期 墓制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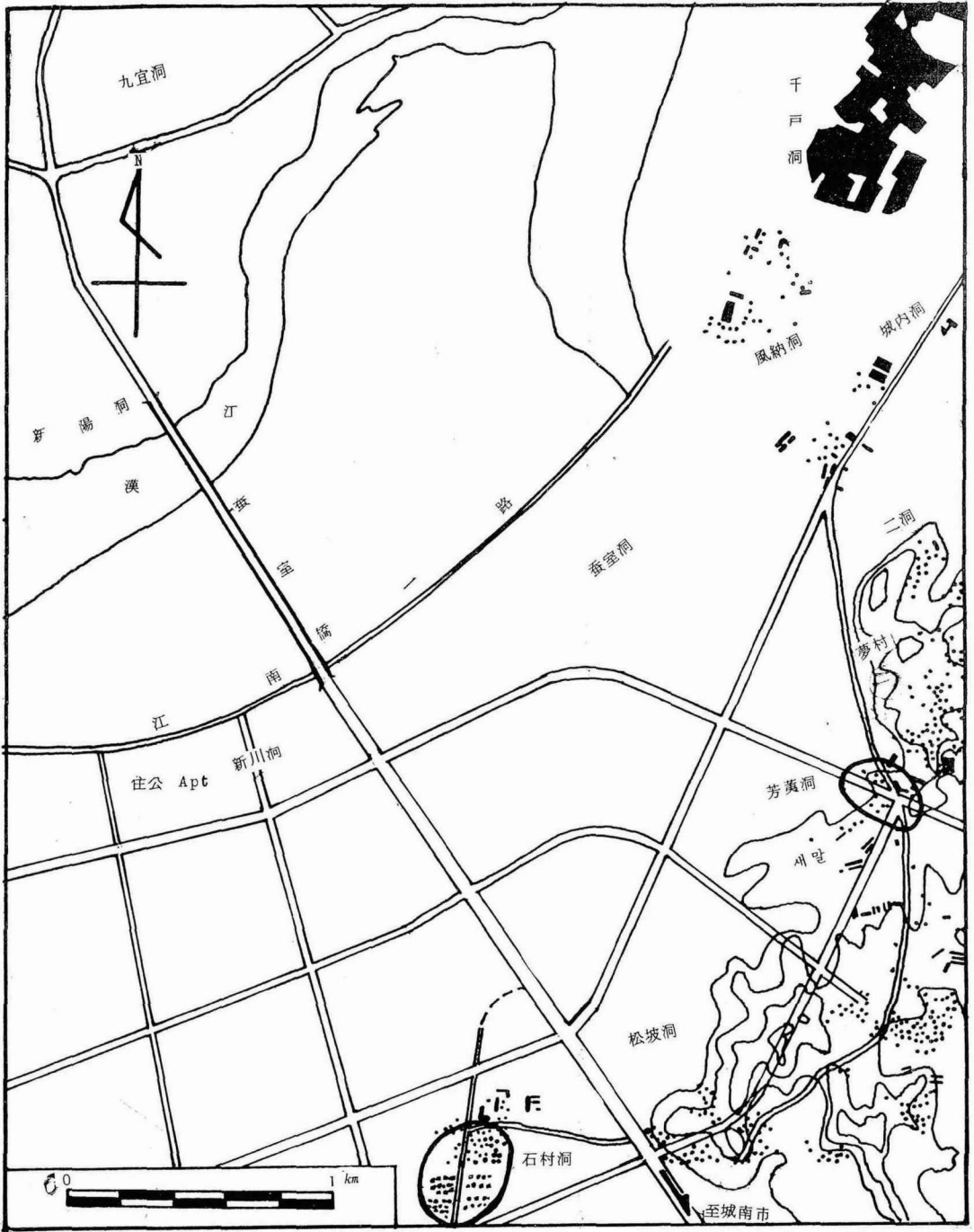
各土壙墓의 構造나 遺物配置 그리고 副葬遺物의 性格上 興味상통하는

共通된 특징을 갖고 있어 百濟初期의 이 地方出身의 支配階層의 家族墓 乃至 親族의 集團墓인데 歷史的 또는 考古學的 背景으로 보아 이 주위의 積石塚의 主體者보다는 下位이고 小形石室墓로 代변되는 平民墓보다는 上位의 支配層墓의 性格을 띠는 것으로, 墓制에 依한 百濟初期의 社會相을 部分的이나 抽出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考古學的으로 매우 意義가 큰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이와 同時代인 風納里 遺跡이나 ① 기타 土城과 연관시킨 細部的인 研究考察을 通하여 보다 폭넓은 百濟初期의 文化的, 歷史的 知識이 提供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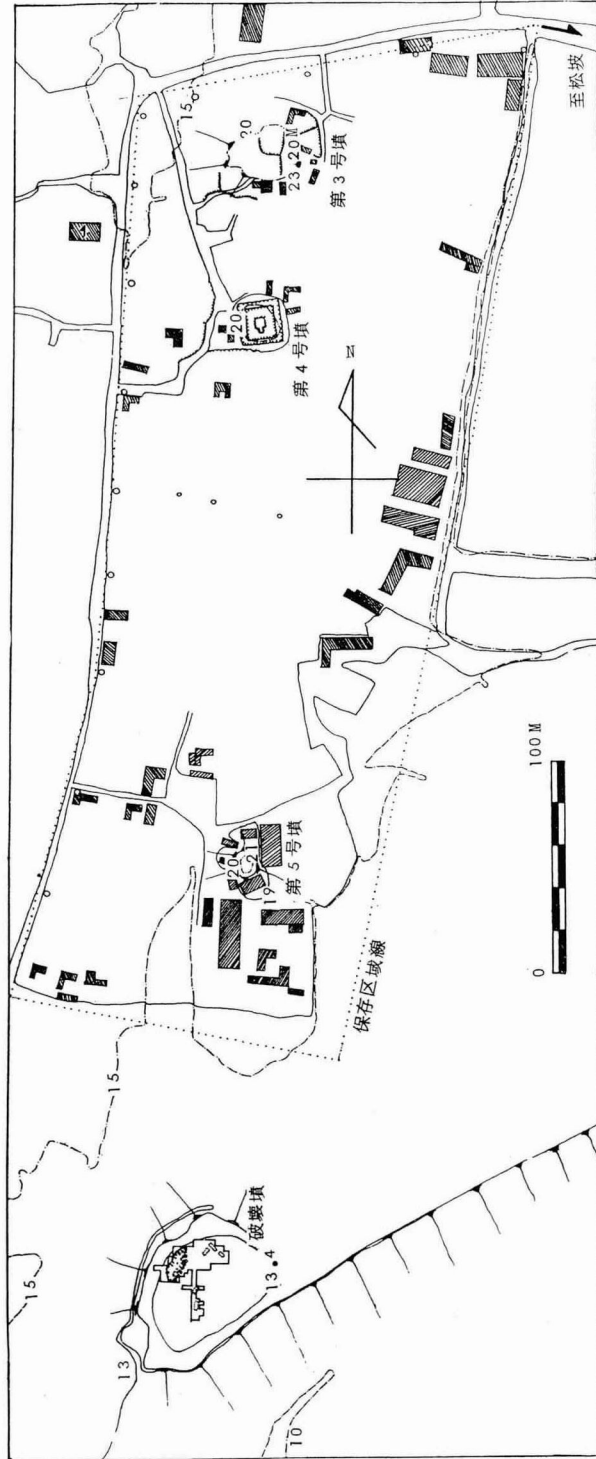
註 ① 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 P.P. 一〇八一—一二三

- ② 朝鮮古蹟圖譜 三卷 P. 二八四
尹世英「可樂洞 百濟古墳 第一號、第二號墳 發掘調査略報」考古學 第三輯, 一九七五, P.P. 二二—一四六
- ③ 서울大博物館·考古學科·石村洞 積石塚 發掘調査報告 서울大學校 古人類學叢刊 第六冊, 一九七五.
- ④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團·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報告 一九七五年
- ⑤ 梅原未治·朝鮮古代의 墓制 一九四七, P.P. 六四—六六
- ⑥ 金元龍·新昌里甕棺墓地 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 第一冊, 一九六四
陳大爲·「遼陽三道小兒童甕棺墓群發掘略報」考古通訊 一九六五年二號, P.P. 五四—五九
- ⑦ 金元龍·風納里 包含層調査報告
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 第三冊, 一九六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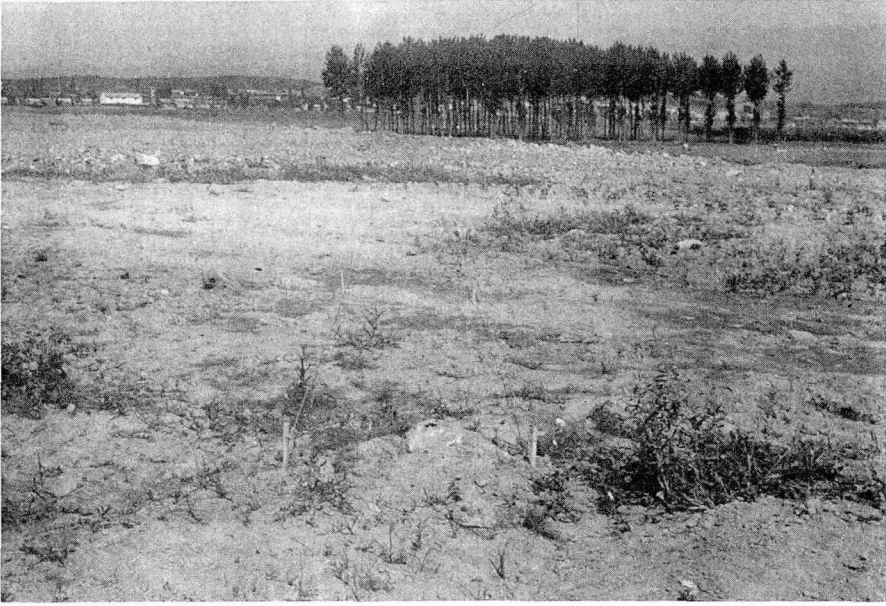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助教授)



圖版 1 遺蹟附近交通圖



圖版 2 石村洞地區古墳分布圖



① 石村洞破壞墳 發掘前全景(西에서)



② 南北探索트렌치(北에서)

圖版 3 石村洞破壞墳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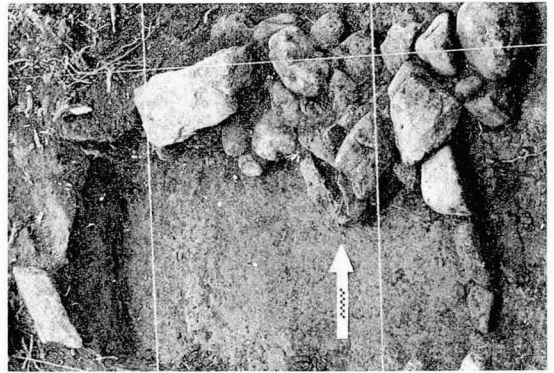
① 石村洞第5號墳原狀(西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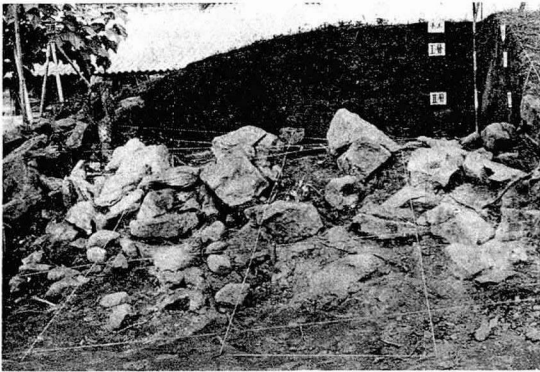
② 發掘着手(西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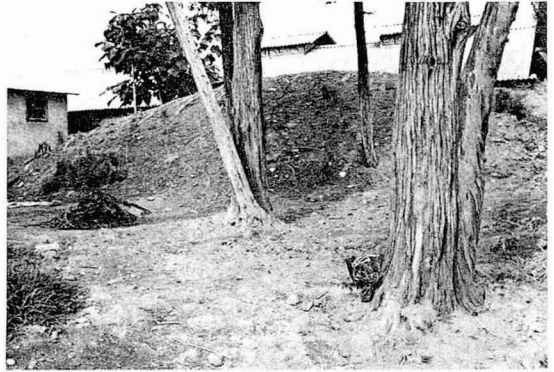
③ 葺石露出狀態(西에서)



④ 封土石列(南에서)



⑤ 葺石과 封土의 關係(西에서)



⑥ 復舊後 全景(西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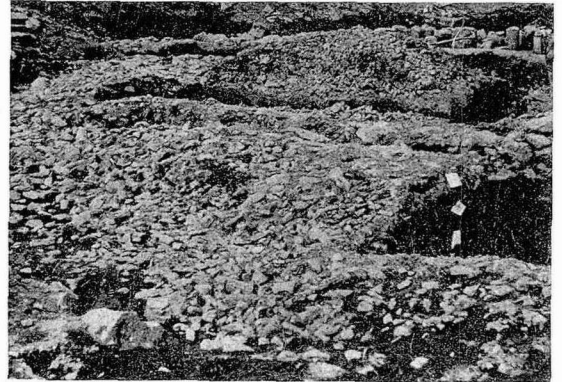
圖版 4 石村洞 第5號墳 發掘光景



① 東西探索트렌치 (西에서)



② 2m×2m의 핏트 (西에서)



③ 北西隅의 葺石露出狀態 (西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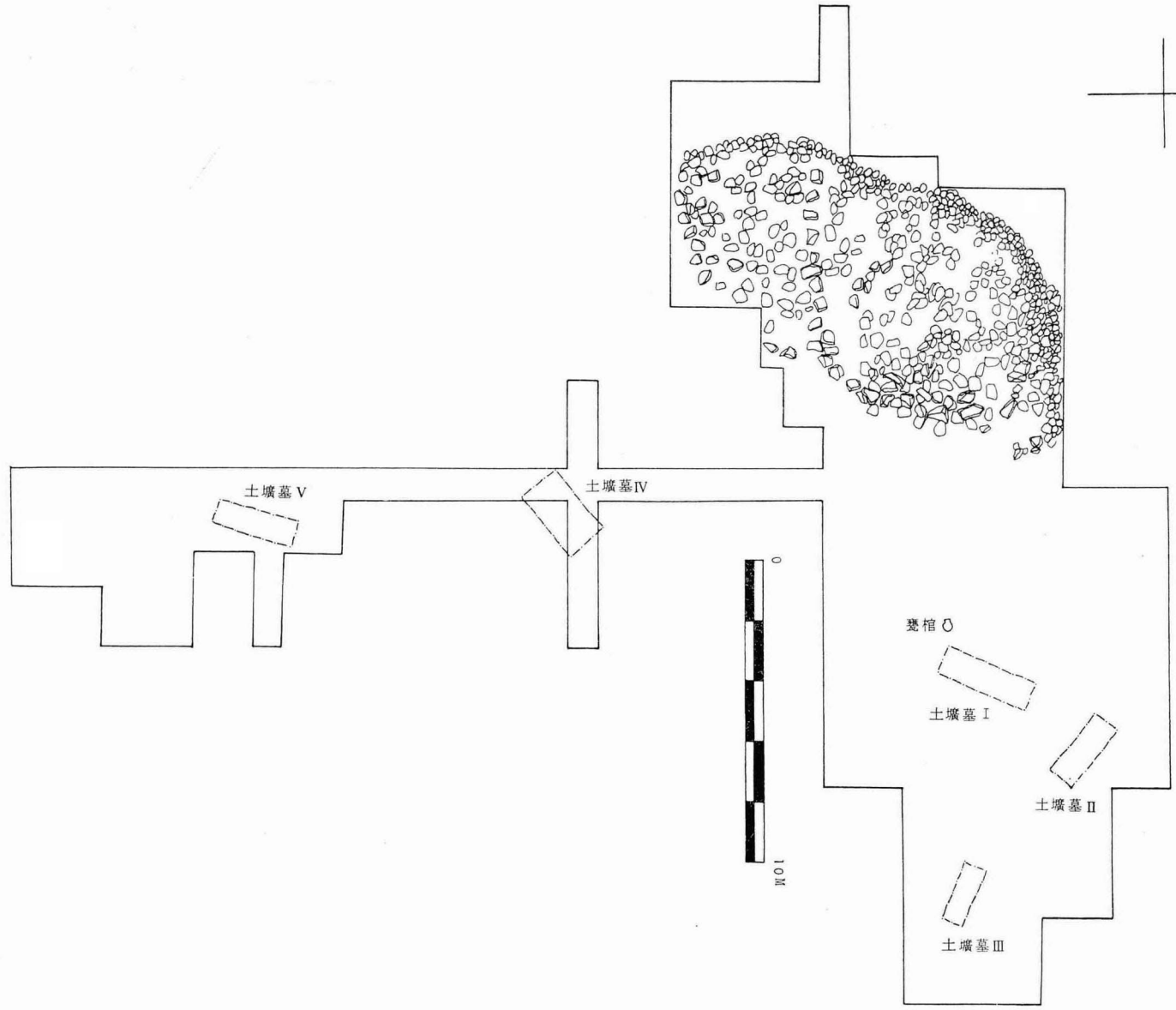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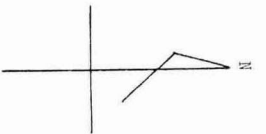


④ 葺石除去狀態 (北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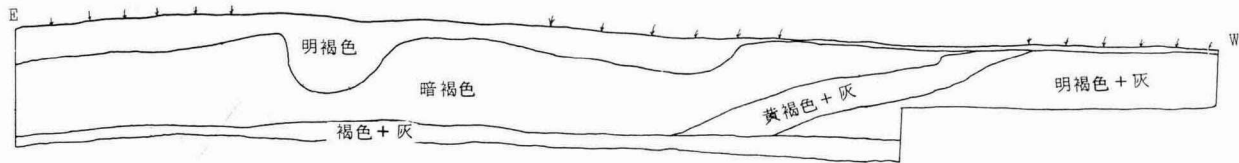


⑤ 핏트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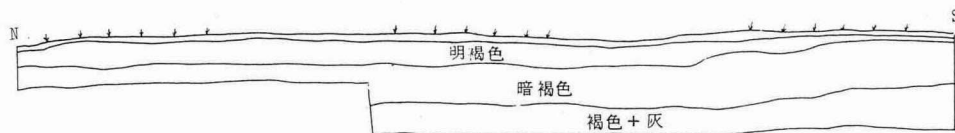
圖版 5 石村洞破壞墳 遺構露出狀態



圖版 6 石村洞破壊墳 土墳墓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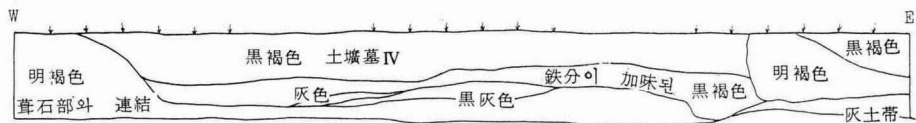
①土墳墓 I, II, III 東西断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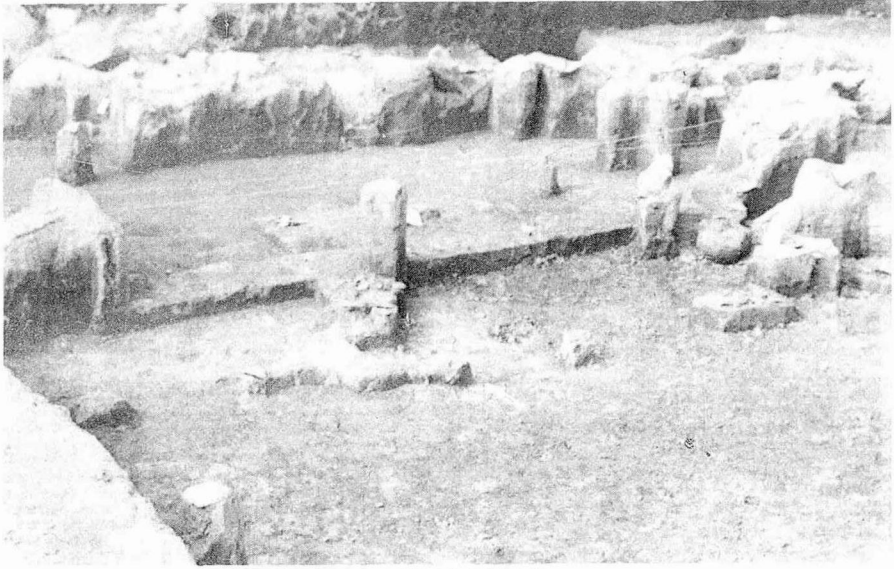
②土墳墓 I, II, III 南北断面



③土墳墓 IV 南北断面



④土墳墓 IV 東西断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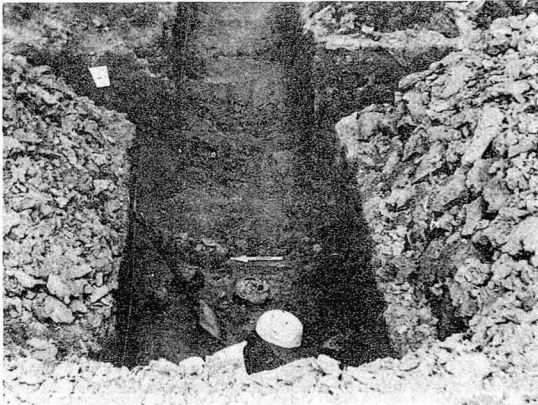
① 土壙墓 I (西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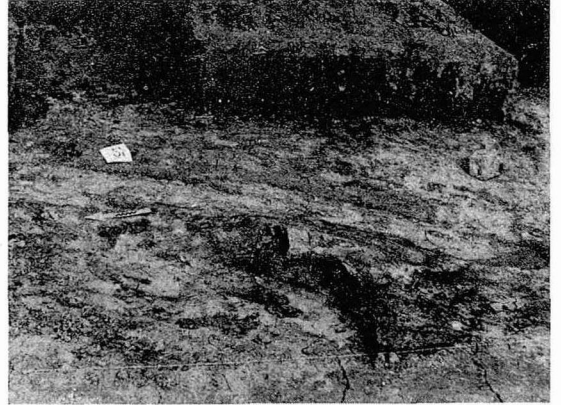
② 土壙墓 II (西에서)



③ 土壙墓 III 割石除去光景(西에서)



④ 土壙墓 IV 遺物出土狀態



⑤ 土壙墓 V 木材腐蝕痕迹

圖版 8 石村洞破壞墳 土壙墓 I, II, III



① 土壙墓Ⅱ 鐵釘土器片出土狀態



② 土壙墓Ⅲ 椁室露出狀態(西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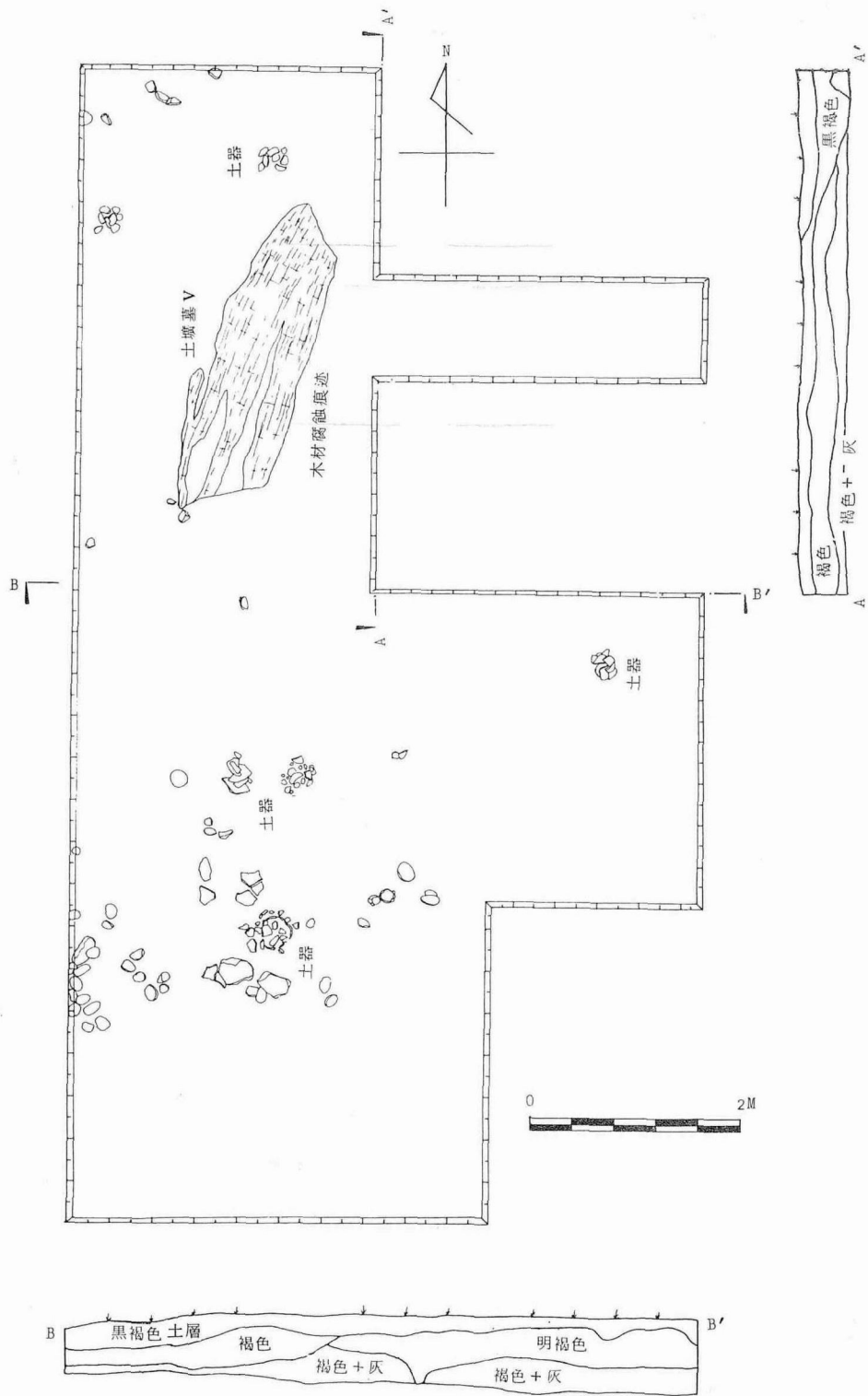


③ 土壙墓Ⅳ 灰青色文壺出土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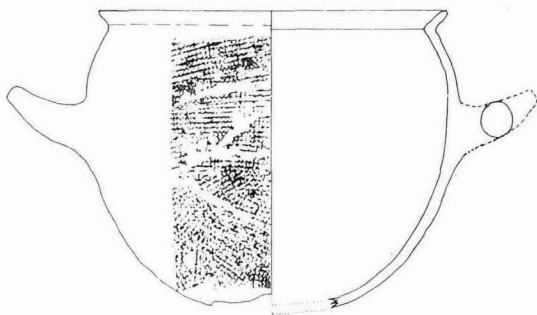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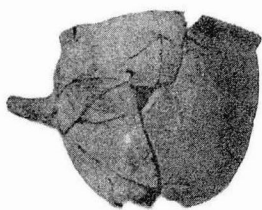
圖版 9 石村洞破壞墳 遺物配置圖(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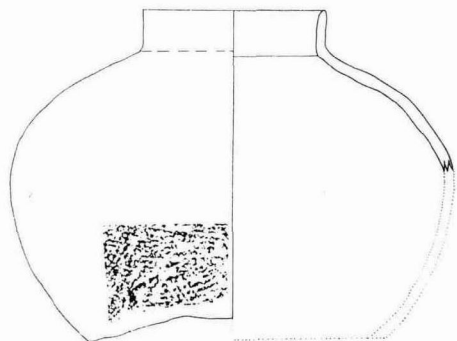
圖版 10 石村洞破壞墳 遺物配置圖(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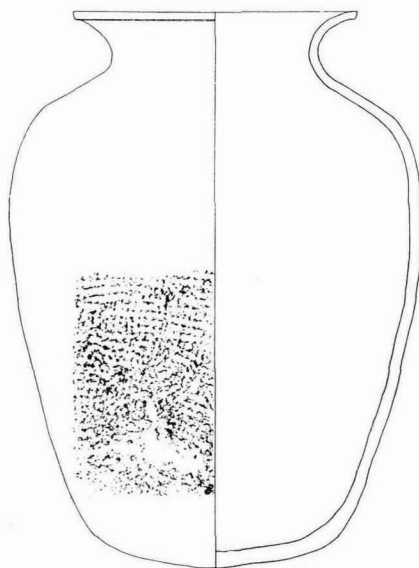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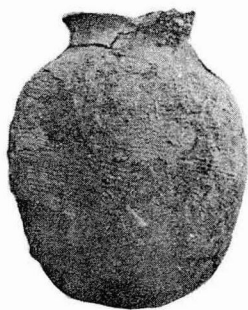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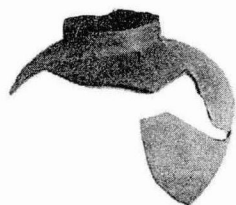
圖版 11 石村洞破壞墳 遺物配置圖(2)



② 把手附 赤褐色 有文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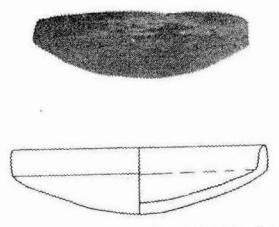


① 灰青色 有文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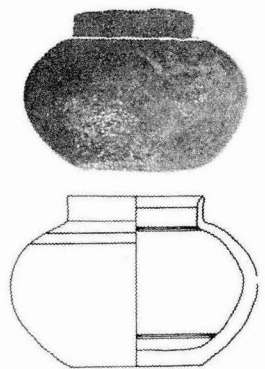


③ 灰青色 無文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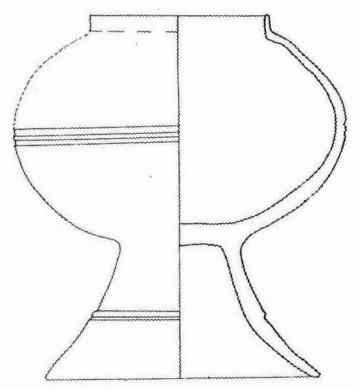
④ 完形甕棺



① 灰青色 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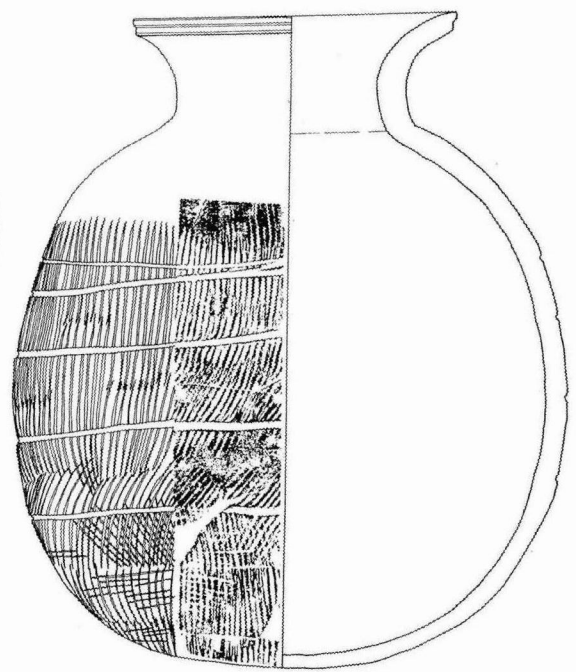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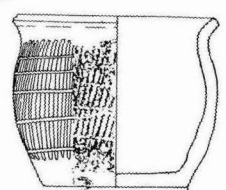
② 灰青色 平底小壺



③ 灰青台 付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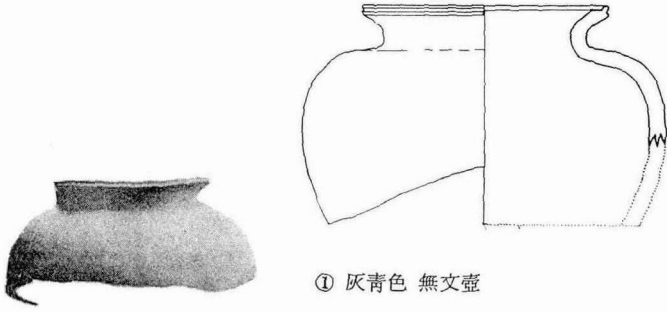


④ 赤褐色 平底小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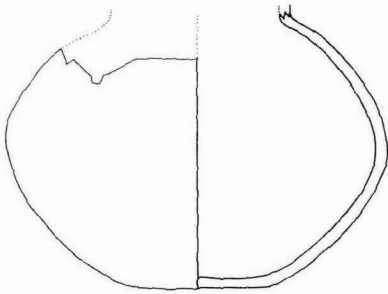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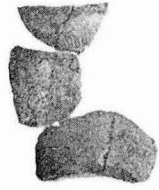


⑤ 灰青色 有文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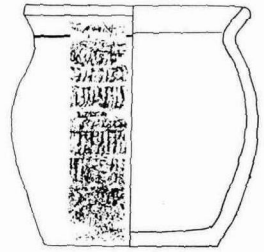
圖版 13 石村洞破壞墳 探索三回天 出土遺物



① 灰青色 無文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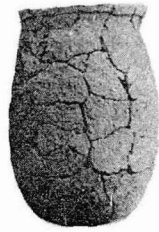
② 無文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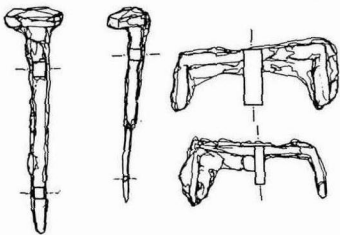
③ 赤褐色 平底小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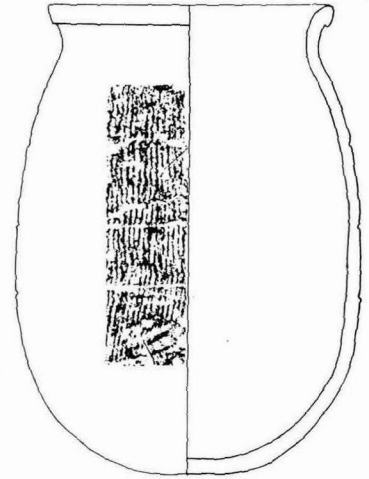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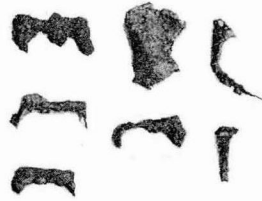
④ 鐵製品



⑤ 鐵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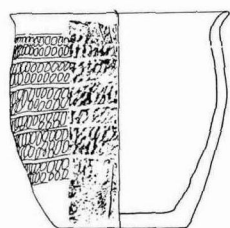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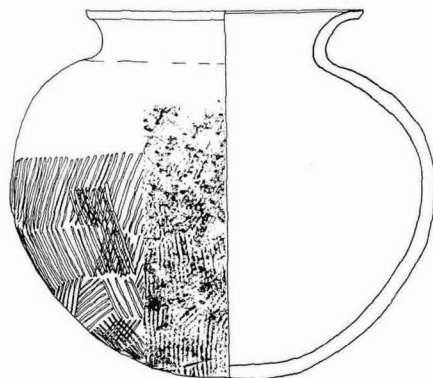


⑥ 鐵器鉢



⑦ 赤褐色 有文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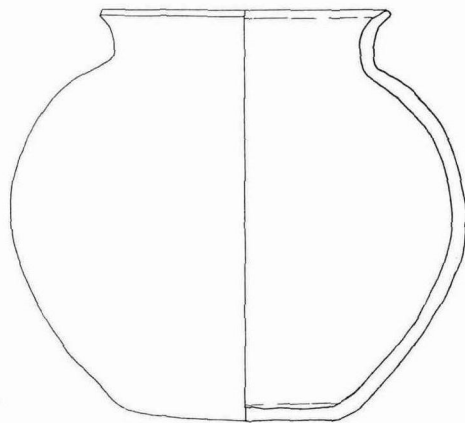
圖版 14 石村洞破壞墳 土墳墓Ⅲ 出土遺物



② 灰青色 有文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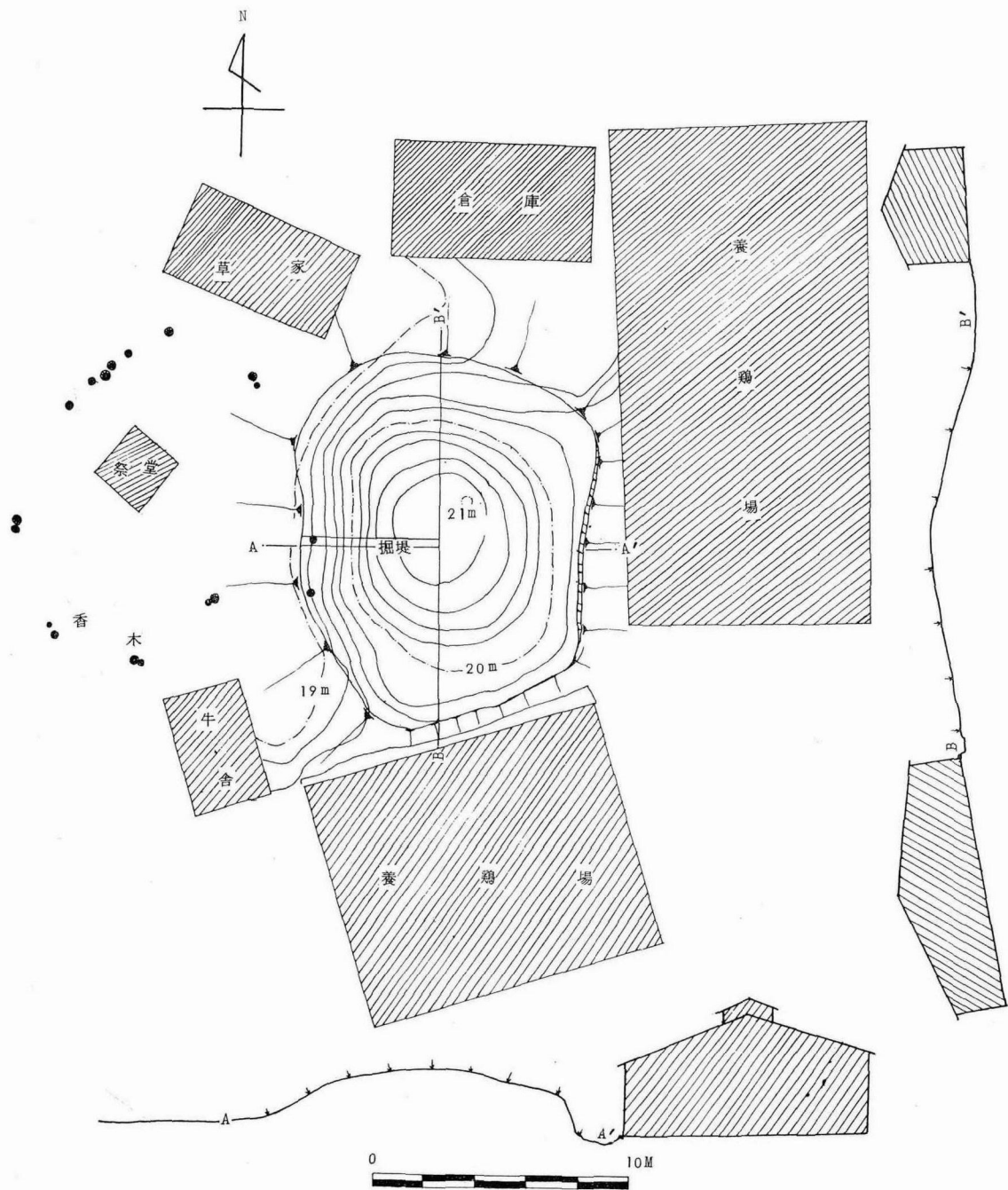


① 赤褐色 平底小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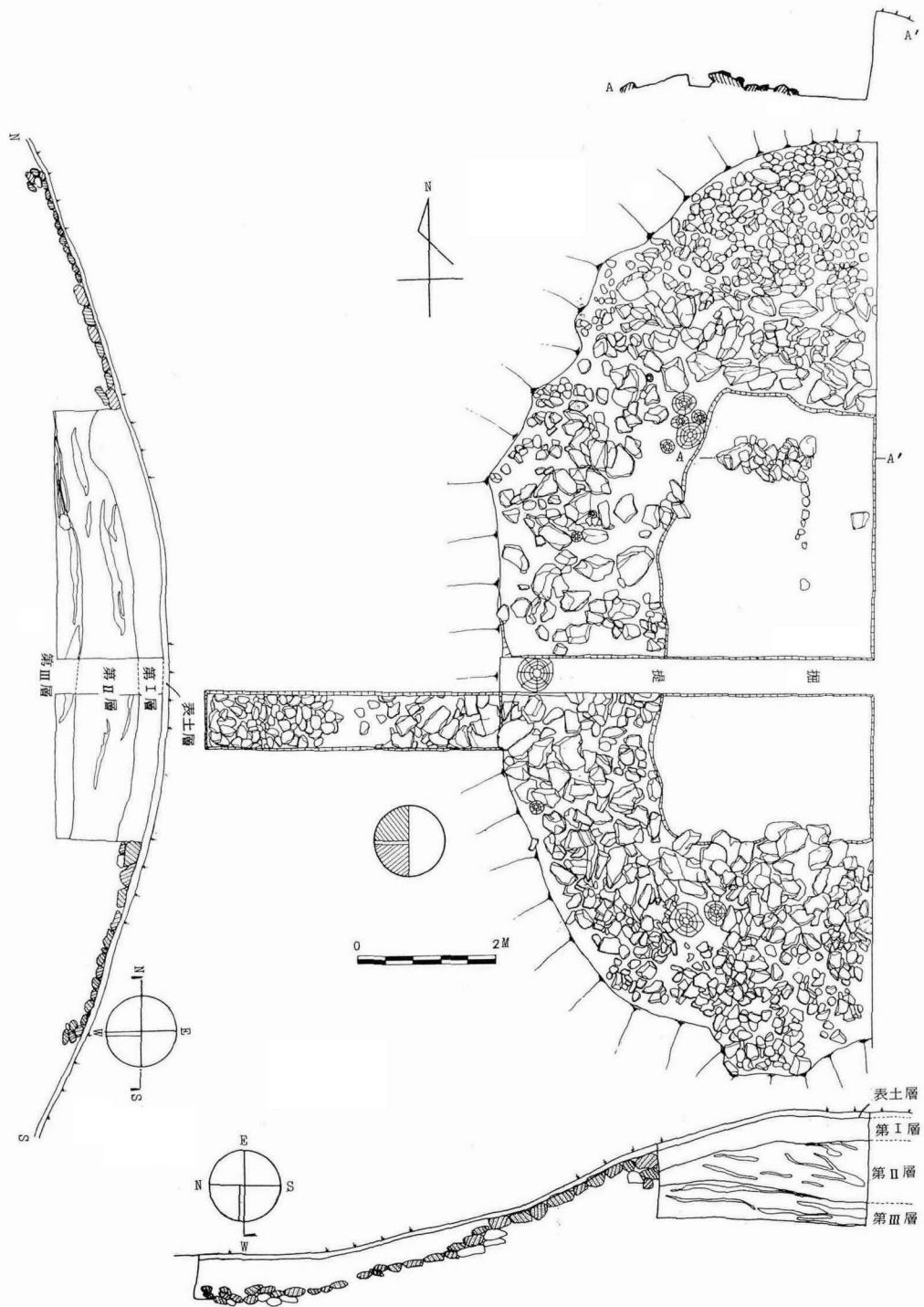


③ 灰青色 平底無文壺

圖版 15 石村洞破壞墳 土坑墓Ⅳ, Ⅴ 出土遺物



圖版 16 石村洞 第 5 號墳 實測圖



圖版 17 石村洞 第5號墳 細部實測圖